

영장 청구 신중해졌다

광주지검 청구 건수 5년새 절반으로 '뚝'

공판중심주의 확대 속

법원 발부율도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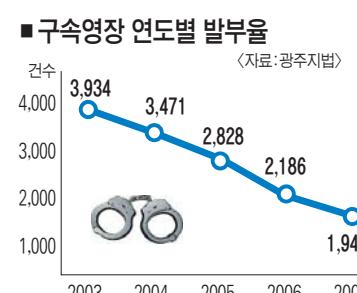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상 적법절차 및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고,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급감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3년 3천934건 ▲2004년 3천471건 ▲2005년 2천828건 ▲2006년 2천186건 ▲2007년 1천94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절반(49.5%) 가까이 줄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 또한 2003년 90%에서 ▲2004년 84.2% ▲2005년 83.9% ▲2006년 74.2% ▲2007년 75.9%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수사과정상 적법한 절차와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인신 구속에 신종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데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것도 영



장 청구가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경우 100% 영장 청구를 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상해 사건도 과거 4주 이상에서 최근에는 8주 이상으로 영장 청구를 완화하는 등 인신 구속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해자 회복 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엄격히 적용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 보호에 따른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수사단계의 증거자료 보다 법정 진술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 가치가 부여되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인신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 탓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 영장 청구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율과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2003년 4.4%, 2004년 3.8%, 2005년 3.0%, 2006년 2.5%, 2007년 2.3%로 줄었고, 영장 발부율은 2003년 86.3%, 2004년 85.1%로 줄다 2005년 86.8%로 소폭 상승했으나 2006년 83.5%, 2007년 78.2%까지 낮아졌다.

전체 사건 인원 대비 구속영장 발부 비율도 1999년 4.5%(11만763명)에서 2007년 1.8%(4만6천20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활짝 핀 벚꽃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30일 광주시 서구 농동 산록회관 내 산책로에서 만개(滿開)한 벚꽃을 감상하며 걷고 있다. 만개 상태의 벚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도로 '무법천지' 여전

신호 위반 급증...경찰 현장 단속 미흡

울 들어 광주 지역에서 법질서·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시내 도로는 교통신호 위반 차량으로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다.

경찰이 최근 2~3년 사이 교통신호 위반 단속을 무인카메라에 의존하고, 현장단속은 거의 순을 놓으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신호등 무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교통신호 위반 건수는 ▲2005년 4만7천여건 ▲2006년 3만7천여건 ▲2007년 4만8천여건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무인단속기 적발 건수를 제외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한 것은 ▲

2005년 2천11건 ▲2006년 2천398건 ▲2007년 2천615건이었다.

하루 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나 단속경찰 인원 수가 비슷한 대전, 울산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53만6천여대로 광주(46만2천여대)에 비해 크게 많지 않은 대전의 경우 경찰이 도로현장에서 적발한 신호위반 단속 건수는 ▲2005년 9천136건 ▲2006년 5천64건 ▲2007년 6천842건으로 광주의 3~4배나 됐다.

울산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40만7천여대로 광주보다 오히려 적지만 경찰의 현장단속 건수는 ▲2005년 7천46건 ▲2006년 9천81건 ▲2007년 1

만4천767건으로 광주보다 최고 7배나 될 정도로 신호위반 적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신호 위반 단속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99명으로, 대전(70명)·울산(90명)보다 많은데도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적은 것은 그만큼 광주경찰이 현장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광주에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천166건으로, 대전 741건·울산 493건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여건이나 사망사고 발생 등 도시마다 객관적인 여건이 다른데도 단속 건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장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며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통해 교통신호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렁이 단팔빵' 녹취테이프 분석 의뢰

'지렁이 단팔빵'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30일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번복한 정황이 담긴 녹취 테이프를 (주)S식품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음성 재생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테이프 음성이 복원될 경우 김씨가 제보를 번복하며 5천만원을 요구했는지, S식품 관계자가 김씨에게 5천만원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연세대 120억 날아가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제106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호 재판관)는 연세대가 '유언장에 자필로 전문·연월일·주소·이름을 쓰는 것에 덧붙여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사업가 김모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비속 없이 숨겼는데, 우리은행 대여금 고에서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본인 유고시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한국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전문과 연월일(1997년 3월8일)·주소·성명이 자필로 써져 있었지만 날인은 빠져 있었다.

교도소·구치소 등

알몸 신체검사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또는 이송 수용자가 함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차단막 등을 설치된 독립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장기 팔아 병역 면제

대학 휴학생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30일 장기밀매조직에 신장을 팔아 병역을 면제받은 임모(20·전남 D대학교 1년 휴학)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돈을 주고 임씨의 신장을 이식받은 김모(43)씨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임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넘긴 김씨의 외조카 강모(2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테이프 음성이 복원될 경우 김씨가 제보를 번복하며 5천만원을 요구했는지, S식품 관계자가 김씨에게 5천만원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대총은 광주 신경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밭코너
신규사시 투자 및 상담문의
▶ 서울본사 : 02-3445-0943
▶ 나주공장 : 061-337-0571

"조카 괴롭힌다" 삼촌이 보복 폭행
○ 정신지체 장애인인 조동학생
조카를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힌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보복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 영광경찰은 30일 조카의 친구와 전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이모(38·영광군 영광읍)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영광군 영광읍 모 초등학교에 찾아가 조카 이모(10)군의 같은 반 친구 지모(10)군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렸다는 것.

○ 이씨는 또 이날 조카의 전 담임교사에게도 찾아가 "지난해 가을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 왜 조카를 출전시키지 않았느냐"며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평소 조카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담임교사로부터 차별 받는 것 같아 화가 났었다"고 진술.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광주 MBC 문화방송
황산·장가비
한국의 황산·장가비를 전합니다.
MBC 문화방송에서 만나보세요!

무안 + 황주 활터 직행
2008년 4월 17일 ~ 5월 10일
무안 농성동 산록회관
황주 활터

무안 + 장사 청개구리 직행
2008년 4월 27일 ~ 5월 17일
무안 농성동 산록회관
장사 청개구리

● 문화 (062) 228-6070